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 mRNA 백신 국산화 ‘박차’

(주)알펙스바이오와 업무협약 체결

생산 인프라·바이오 산업 경쟁력 ↑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가 mRNA 백신 및 치료제의 국산화와 상용화 기반 마련에 나선다. 16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화순 미생물실증지원센터는 (주)알펙스바이오와 mRNA 산업에서 의약품 개발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mRNA 백신은 병원체의 유전 정보를 담은 메신저 RNA를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의 백신이다. 대표적으로 코로나19화이자·모더나 백신이 있다.

이번 협약은 mRNA 원천기술을 활용한 신규 파이프라인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해 양 기관이 보유한 핵심 역량을 결합해 mRNA 기반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공동 연구개발 과제 기획과 수행을 포함해 mRNA 기반 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알펙스바이오는 ▲mRNA 및 자가복제 RNA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술 구축 및 평가 ▲mRNA/LNP 공정 확립 ▲신규 제품 플랫폼 개발 ▲국내 mRNA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업과의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센터는 ▲GMP 기반의 mRNA 의약품 공정개발 및 제조 인프라 제공 ▲기술 도입 및 사업화 자문 ▲제품의 원예 및 완제 생산 등 전 주기 지원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R&D 초기 단계부터 생산까지 연계된 공공 CDMO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센터는 기존 제조시설과 신규 mRNA 제조동을 바탕으로 mRNA CDMO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다.

비임상 시료부터 국가 비상 시 대응 가능한 mRNA 백신 공급까지 아우르는 전 생산 시스템을 내년까지 완비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솔레이터(Isolator) 사양의 프리필드 시린지 라인도 새롭게 구축해 1ml 프리필드시린

지 및 2R, 6R 바이알 단위의 완제의약품 생산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사업 범위가 대폭 확장된다.

알펙스바이오는 RNA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감염병 예방 및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독자적인 mRNA 플랫폼 기술과 RNA 바이러스 역유전학 기반의 차세대 백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mRNA 기반의 신규 의약품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다수의 제약사들도 이에 발맞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화순=이병철 기자

다이어트·미용 효과…광양매실 K푸드 ‘각광’

스타벅스 콜라보·클렌징 제품 등

하이볼·쿠기·막걸리 등 ‘인기’

광양매실이 소화 촉진, 숙취 해소, 다이어트, 피부 미용 등 효능으로 산업 전반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세계적인 커피전문업체 스타벅스커피코리아는 ‘광양 황매실 피치오’에 이어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를 맞아 매실을 활용한 ‘슬리데린 플럼 그린 티’를 출시했다.

또한 한 화장품 제조회사에서는 상큼한 광양산 정매실 추출물을 핵심 성분으로 한 클렌징 제품군을 새롭게 선보이며 여름철 클렌징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해당 기업은 광양산 청매실을 갈아 만든 클렌징 제품이 인체 적용 시험에서 1회 사용으로 99.8%의 모공 노폐물 세정, 4주 사용 후 94.4%의 각질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광양매실은 색이 선명하고 알이 고르고 단



광양매실로 만든 각종 가공식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매화빵, 매실쿠기, 매실농축액. <광양시 제공>



단하며 껍질에 흡이 없는 것이 최고 상품으로 평가되며, 광양 매실은 구연산 함량이 매우 높고 향이 진하며 색상이 선명한 것이 특징이다.

전국 매실 생산량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 광양매실은 장아찌, 된장, 고추장 등 다채로운 가공식품으로 개발, 생산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MZ세대의 입맛을 겨냥한 매실하이볼,

매실주, 매실막걸리 등의 주류와 매실쿠기, 매실아이스크림, 매실쌀강정 등으로 변주되며 웰빙 먹거리의 감초로 부상하고 있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광양매화마을을 일원에서는 매실 수확이 한창”이라며 “광양매실로 만든 각종 가공식품 등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여수 ‘시책 일몰제’, 10억여 예산 절감 효과

27개 사업 확정…역점사업 등 재투자

여수시는 16일 “내년 여수세계계섬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행정 효율성 제고와 예산 절감을 위해 ‘시책 일몰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효가 없는 사업을 자체 진단해 폐지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국가산단 불황에 따른 시제정여건 악화과 2026여수세계계섬박람회 준비에 따른 전략적 판단으로, 약 10억600만원의 예산 절감이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전 부서 사업을 전수조사하고 자체평가와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7개 사업을 일몰 대상으로 확정했다.

일몰이 확정된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제안 및 견문보고 우수직원 포상금 ▲365 아일랜드 청년 유람단 ▲작은 다문화학교 운영 ▲학교급식 계약재배 농가 선진지 견학 ▲동부권 이동도서관 운영(서부권과 통합 운영) 등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일몰제 시행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2026여수세계계섬박람회를 비롯한 지역적 사업에 재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2023년 일몰제 시행을 통해 16건의 사업을 일몰하고, 3억7천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순천시가 지난 15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장 이후 처음으로 반려견과 함께 정원을 산책할 수 있는 ‘펫데이 이벤트’를 개최했다. <순천시 제공>

순천만국가정원, 반려견 첫 이벤트 행사

전국 200명 반려인 모여…행사 다채

순천시가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장 이후 첫 ‘펫데이 이벤트’를 개최했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펫데이 이벤트’는 반려견과 함께 정원을 산책할 수 있는 행사로, 정원 남문 일원과 스페이스 허브 구간에서 펼쳐졌다.

전국에서 모인 반려인 200명과 반려견 150마리가 함께 정원의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 당일에는 ▲반려견 이동진료소 ▲가족

손도장·발도장 체험 ▲반려원터 ▲개우소 등 다양한 반려친화형 시설과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남 최초의 반려견 전용 열차 상품인 ‘순천 땀땀트레인’과 연계돼 더욱 주목을 받았다.

‘순천 땀땀트레인’은 서울, 대전, 익산 등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모집된 반려인과 반려견이 전용 열차를 타고 지난 14~15일 1박2일 양일간 ▲순천만국가정원 ▲오천그린광장 ▲순천드라마촬영장 ▲와온해변 등 순천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반려여행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백문이불여일타, 순천만국가정원犬과함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반려가족이 한나절 동안 정원 속에서 여유롭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앞으로도 자연과 사람,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전남 최초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개관하고,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문화축제 운영 등 반려가족을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순천=정기 기자

담양군, 6월 자동차세 납부 안내

제1기분…오는 30일까지

담양군은 “최근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 1천182건, 총 22억8천700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 기한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이번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1일 기준 담양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건설기계 포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연초에 연납을 신청해 이미 납부한 차량이

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및 감면 대상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한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최미자 재무과 세정팀장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오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축구 결의대회 ‘성료’

환경부에 단일 노선 원칙 폐지 등 요구

구례군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정책 전환과 구례 노선 승인을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6일 구례군에 따르면 최근 구례 섬진아트홀에서 구례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위원회 주최, (사)지구환경보존복지연합 구례군지부 주관으로 소상공인연합회 구례지회 등 26개 사회단체와 지역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이번 결의대회는 환경부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인 케이블카 정책 방향 도출을 위해 국립공원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케이블카 설치지는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 등 구례군의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며 “기존 단일 노선 원칙 고수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2012년 지정된

삭도시범사업 대상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

▲비현실적인 단일 노선 원칙을 폐지할 것 ▲삭도시범사업이 미시행된 지자체를 국립공원 전문위원회 구성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환경부의 국립공원 케이블카 정책 전환 관련 내용을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와 반드시 공유할 것 등을 환경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구례군은 설악산, 소백산 등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는 타 지자체와 연대해 국립공원 정책의 합리적 전환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을 밝혔다.

구례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케이블카 사업이 관광역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적 가치 회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임을 재차 강조했다.

행사 주최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가 환경 정책 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조만간 환경부를 방문해 채택한 결의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곡성 석곡면 당지마을 ‘유기농 생태마을’ 선정

우렁이 농법 활용 친환경 단지 운영

곡성군은 “최근 석곡면에 소재한 당지마을이 ‘2025년 하반기 전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당지마을은 총 23가구(농가 18호, 비농가 5호)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체 경지면적 20.6ha 중 9.9ha 면적이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2.5ha에서 무농약 인증을 받아 총 인증면적 12.4ha로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

특히 이 마을은 우렁이 농법을 활용해 벼를 재배하며, 10.2ha에 달하는 친환경 단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리적인 장점으로는 통명산, 국사봉, 달봉 등 산들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

고 있으며, 당지천과 당지저수지가 인접해 동식물 서식지와 절세도래지로서의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마을 담당은 전통 돌담으로 만들어져 자연 친화적인 경관 유지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당지마을은 사업 선정으로 최대 5억원의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사업비와 4천만원의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곡성군은 이를 기반으로 향후 체험·가공·유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농촌관광 자원화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곡성군은 곡성을 동막마을과 새터마을, 당지마을을 포함한 총 9개 마을이 전남 유기농 생태마을로 선정됐다. /곡성=김영철 기자